

KC 안전인증 관련 중소기업의 “손톱 밑 가시” 제거

- ① 어린이용 장신구 포함 36종, 사전허가제에서 사후점검제로 전환
- ② 공산품 KC 시험인증기관 경쟁체제로 전환

□ 지식경제부(‘산업통상자원부’로 변경예정) 윤상직 장관은 3.15(금) 오후, 어린이용 장신구 제조업체가 밀집한 남대문시장*에서 안전인증 제도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가짐

* 남대문시장 : 국내 장신구업체(약 3,500여개) 중, 2,300여 업체가 집적된 최대 클러스터

- 이번 행사는 윤상직 장관의 중소기업 ‘손톱 밑 가시’ 제거를 위한 첫 행보로서, 남대문 악세사리 상가 연합회 관계자, 소비자 단체,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하여 인증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

□ 이날, 간담회에서는 ①어린이용 장신구 제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과, ②공산품 KC(국가통합인증, Korea Certification)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방안이 중점 논의되었음

* 안전·보건·환경·품질 등 부처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분야별 인증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

① 어린이용 장신구 제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과 관련,

- 현재,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주요 생활용품(어린이용 장신구, 디지털 도어록 등), 전기용품(비디오게임기구, 오디오 비디오학습기) 등에 대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,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,

- 이에 대해 제조업체는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과 중복인증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, 소비자들은 정부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

- 이날 참석 업체는 동일 소재가 머리띠나 팔찌 등 다른 종류의 제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각각의 제품별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고,

⇒ 이에, 윤장관은 “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질별, 종류별 시험 구분을 없애고, 재질별 검사로 일원화 할 것”을 약속하였음

- 이어, 참석 전문가들은 공산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사전허가제와 사후점검제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 하면서,

- 사전허가 취득과정에서의 획일적인 규제에 의한 중복검사 등으로 인해 원가상승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, 사후점검제로 전환해 주도록 요청하였음

⇒ 윤장관은 “사후점검제가 선진화된 제도이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도 고려되어야 하고, 품목에 따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고 밝히면서, 우선 사후점검제로의 전환이 가능한 어린이용 장신구를 포함하여 36종*을 사후점검제로 전환”하겠다고 하였음

* 생활용품(디지털도어록, 자동차용타이어 등) 13종, 전기용품(비디오게임기구, 오디오 비디오학습기 등) 23종을 사전허가에서 사후점검으로 **입법예고 예정**

그리고, “사후점검대상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지자체·소비자단체 등과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, 영세업체들에게 안전한 소재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세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힘

현 행	전 환 후
·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성 확인/신고 → KC마크 및 품질표시사항 표기 → 판매 → 사후점검	·인증시험기관의 성적서, 자체시험 등을 통해 업체 스스로 안전성 확인 → KC마크 및 품질표시 표기 → 판매 → 사후점검(강화)

② 공산품 KC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 체제 도입방안과 관련,

- 전문가들은 안전인증을 하는 시험기관이 품목별로 단수로 지정되어 있거나, 또는 소수의 시험기관만 지정되어 있어 **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됨에 따라**

- 사전허가를 위한 **소요 시험기간이 길고, 시험 수수료가 과도***하게 높게 책정되는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

* 예)알카라인전지의 “누액시험” 경우 시험기간 40일(수수료146,500원) 등

- 또한,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은 특수장비를 요구하는 등 시장 수급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험·검사기관간 자발적인 경쟁이 안되거나, 시험 수수료가 비싼*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음

* 예)카시트 경우 시험비용 100~500만원(“동적충돌시험”비용만 80만원)

⇒ 이에, 윤장관은 “시험기관간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**관련 법규 개정을 즉시 추진하고,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음**

- 행사에 참여한 업계,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**안전인증에 대한 영세업체의 애로 해결과 공산품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**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음

- 지식경제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입지, 기술, 수출 등 **주요 테마별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‘손톱 밑 가시’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음**

<참고 1>

제1차 “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” 제거 현장 간담회 개요

□ 개최 목적

- 기업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**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**

□ 간담회 개요

- 일시 장소 : 3.15(금), 15:00~16:30 / 남대문시장* 상가연합회 회의실
- 참석자 : 지식경제부, 관련업계, 유관기관 등 14명
 - 지경부 : 장관(주재), 산업경제실장,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국장, 기업애로점검 TF 관계자 등
 - 업 계 : 심재립 남대문시장 약세사리 상가연합회장 등 7인
 - 전문가 :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, 허경옥 성신여대(가족소비자학과) 교수, 조기성 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, 김현일 의류연구시험원장

□ 안 건

- ① 「어린이용 장신구」 제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**제품 안전 관리 합리화 방안**
- ② 공산품 KC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**경쟁체제 도입방안**

□ 세부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5:00~15:10	'10 약세사리 상가 현장 방문	장관, 관계자
15:10~15:15	'5 이동	상인회 회의실
15:15~15:20	'5 참석자 소개	사회자(김필구 국장)
15:20~15:25	'5 환영사	심재립 상인회 회장
15:25~15:30	'5 인사 말씀	장관
15:30~15:40	'10 어린이용 장신구 산업현황 및 애로사항 발표	심재립 상인회 회장
15:40~16:25	'45 토론	참석자 전원(장관 주재)
16:25~16:30	'5 결론 도출 및 마무리 말씀	장관

안전관리 제도변경 예정 품목
[사전허가제 → 사후검사제]

구분	품 명	비고
생활용품	어린이용 장신구, 자동차용브레이크액, 자동차용 안전유리,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, 자동차용 타이어, 자동차용 휴대용잭, 디지털 도어록, 벽지 및 종이장판지, 쇼핑카트, 휴대용 사다리, 인라인 롤러스케이트, 킥보드, 가속눈썹	13 종
전기용품	감자탈피기, 전기정미기, 전기 빵 자르개, 애완동물 목욕기, 전기 주류숙성기, 전기시계, 적외선·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, 전기분수기 투영기, 착유기, 보풀 제거기, 새싹재배기, 콩나물 재배기, 전기작동 도어록, 영상모니터, 비디오게임기구, TV영상프로젝터,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, 재단기, 실물화상기, 입체영상기, 형광램프용 스타터	23 종
계		36종

어린이용 장신구 개요 및 악세사리 산업현황

□ 어린이용 장신구 개요

-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반지, 목걸이, 팔찌 등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장식용품

* 어린이용 장신구 종류 : 반지, 목걸이, 팔찌, 장식용 체인, 귀고리, 펜던트, 발찌, 손톱장식품, 피어싱, 배꼽찌, 머리장식품 등

<어린이 장신구 예시>



□ 악세사리 산업현황 (어린이 장신구 포함)

- 국내업체규모 : 약 3,500업체(판매 포함)
 - 남대문 2,300, 동대문 500, 성내동 200, 기타 지방제조 500
- KC 신고업체 : 544업체(남대문 420, 동대문 30, 기타 94)
- 악세사리 분야 시장규모(추정치) : 3,200억(어린이장신구 700~800억)
 - 남대문 약 2,000억, 동대문 약 500억, 기타지역 약 700억
 - 특정권역의 문화에 맞는 특화된 컬러와 디자인으로 생산된 제품은 꾸준한 수출세(중동권역, 중화권역, 유로권역, 미주권역)